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이 국 진*

<目次>

- | | |
|----------------------|-----------------------|
| I. 서론 | III. 한강 유람 漢詩의 형상화 방식 |
| II. 한강 유람 記文의 형상화 방식 | IV. 결론 |

<국문 초록>

명나라 사신들이 한양에 머물 때, 그들에게 한강 유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접대 행사였다. 이때의 한강 유람은 왕실 소유의 漢江樓(濟川亭)에서 거창한 연회를 펼친 뒤, 배를 타고 楊花渡와 蠶頭峰 일대를 거쳐 다시 왕실 소유의 望遠亭(喜雨亭)에서 마무리 연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 문인들과 詩를 수창하며 한강의 풍경과 개인적인 흥취를 표현하였다. 또한 일부 명나라 사신들은 한강 유람이 끝난 뒤, 그 여정을 記文으로 표현했다.

이에 명나라 사신들은 기문을 지을 때, 사신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자의식을 견지하면서 한강 유람의 여정과 그 풍광의 아름다움 및 개인적인 흥취를 서술하였다. 그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한강 유람을 했던 倪謙의 「漢江遊記」와 祁順의 「漢江記」는 절제된 내용과 정형화된 구성을 바탕으로, 풍경 묘사와 개인적인 흥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사행이 어느 정도 관례화 된 뒤에 한강 유람을 했던 華察의 「遊漢江記」와 王夢尹의 「漢江船遊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jinysmile@hanmail.net

圖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용과 과격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풍경 묘사와 개인적인 흥취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비해서 명나라 사신들이 한강 유람을 하면서 지은 시작품들은 순간적인 풍경의 포착과 즉각적인 흥취의 표출이 두드러졌다. 다만 유람의 방식과 그에 따른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동일한 시적 재를 바탕으로 비슷한 형상화 방식을 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품들은 율시의 對偶法과 章法을 공교롭게 구사하는 가운데 풍경 묘사와 서정 표출을 적절하게 가미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수준 높은 意境을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조선조 문인들에게도 큰 문학적 자극이 되었다.

또한 한명회는 사신의 신분으로 중국에 가서 狎鷗亭이라는 이름과 그에 관한 기문을 예겸으로부터 받아내었다. 이후 두 번째 사행에서는 명나라 문인들로부터 압구정에 관련된 시도 받아내었다. 이는 결국 개인 소유의 정자인 압구정이 명나라 사신들에게 한강변의 명소로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명나라 사신, 한강 유람, 漢江樓(濟川亭), 楊花渡, 蠶頭峰, 望遠亭(喜雨亭), 狎鷗亭

I. 머리말

조선과 명나라는 긴밀한 사대관계를 바탕으로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¹⁾ 이때 명나라 사신들은 주로 압록강을 건너 義州安州平

1) 조선 왕조가 수립되면서 신년을 축하하기 위한 賀正使·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聖節使·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千秋使를 기반으로 한 '1년 3使'가 조선 사절의 정기적 사행이 되었다. 잠시 조선의 요동 공벌에 관한 소문을 경계한 명나라의 요구로 '3년 1使'가 시행되기도 했는데, 이후 양국 간의 신뢰가 돈독해지면서 종종 26년(1531)부터 동짓달에 사신을 보내는 冬至使가 추가되어, '1년 4使'가 되었다. 또한 이 밖에도 각종 명목의 비정기적인 사행이 시행되었다. 한편 명나라는 조선의 국왕·왕비·왕세자를 책봉하거나 조칙을 반포하는 것을 비롯해서 무역이나 자국민의 송환과 같은

壤黃州開成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한양에 머물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공무를 다 마친 뒤에 한강에서 벌이는 연회와 유람도 중요한 행사였다.²⁾

한강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도성에서 가까워, 일찍이 조선시대 왕실과 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別墅와 書齋, 樓閣과 亭子가 자리했으며, 그 곳에서 宴會·詩會·契會가 끊이지 않았다.³⁾ 따라서 명나라 사신들에게 제공된 한강에서의 연회와 유람은 조선시대 한양의 상류층이 즐기던 풍류를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이에 명나라 사신들은 여러 接伴使의 접대를 받으며, 漢江樓(濟川亭)⁴⁾에서 연회를 가진 뒤, 뱃놀이를 즐기며 楊花渡⁵⁾까지 내려가 蠶頭峰⁶⁾에 오르거나 望遠亭(喜雨亭)⁷⁾을 찾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

다양한 외교적 목적을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朴元燾,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3, 291~294쪽 참고.)

- 2) 명나라 사신들의 사행 경로와 한양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태영,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63~73쪽을 참고했다.
- 3) 조선 초·중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이종목,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회, 2001.)
- 4) 漢江樓(濟川亭) : 지금의 한남동 537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던 왕실 소유의 정자이다. 처음에는 한강루·한강정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있는 작은 정자를 크게 늘려 지으면서 제친정이라고 한 듯하다.
- 5) 楊花渡 : 마포구 합정동 방면 한강 북쪽에 있던 나루이다. 한강을 통해 양천을 지나 강화 쪽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삼남 지방과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던 곡물을 저장하였다가 재분배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마포와 서강에서 흘러오는 물이 맑고 잔잔하여 뱃놀이와 고기잡이에도 모두 좋은 곳이었다.
- 6) 蠶頭峰 : 양화나루 옆에 솟아 있는 20m 높이의 암벽이다. 잠두봉은 봉우리 모양이 마치 누에가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고, 龍頭峰 또는 들머리[加乙頭] 라고도 불렀다.
- 7) 望遠亭 : 지금의 마포구 망원동 방면 양화나루 서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 세종 6년(1424년)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喜雨亭이라고 일컬었는데, 가뭄에 고통을 겪던 중 세종이 농민들 형편을 살피기 위해 이 근방을 찾았다가 마침 비가 내려 기쁜 마음에 직접

정에서 조선 문인들과 詩를 수창하며 한강의 풍경과 개인적인 흥취를 표현하였다.

그런데 명나라 사신들과 조선 문인들이 시를 수창하는 일은 서로간의 문학적 역량을 견주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명나라 사신들은 자국의 문학적 자존심을 지키려 했으며, 조선 문인들은 자신들의 文才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명나라 사신들과 시를 수창하던 일화는 언제나 조선 문인들의 인구에 회자되었다. 나아가서 조선 문인들은 명나라 사신들이 남긴 작품의 수준과 작가적 역량 및 그 문학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⁸⁾

또한 일부 명나라 사신들은 한강 유람이 끝난 뒤, 그 여정을 記文으로 표현했다. 시가 순간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흥취를 발산하는데 효과적이라면, 記文은 전체적인 여정과 다양한 견문을 기록하고, 개인적인 흥취는 물론 의문까지도 담아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명나라 사신들이 남긴 기문에는 당시 그들이 조선을 이해하던 관점과 사신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으며, 한강에 대한 미적 인식 태도가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명나라 사신들이 한강 유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詩와 記文을 고찰하려 한다.⁹⁾ 이를 통해 당시 한강 유람의 문화적 실상을 살펴보고, 명나라 사신들이 한강의 풍경과 내면의 서정을 표현하는 방식 및 그 문학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이후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정자를 고치면서 이름을 ‘망원정’으로 바꾸었다.

- 8) 이에 대한 자료는 成倪의 『慵齋叢話』, 金安老의 『龍泉談寂記』, 權應仁의 『松溪漫錄』, 柳夢寅의 『於于野談』, 金萬重의 『西浦漫筆』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본고는 1773년(英祖 49년)에 1450년의 『皇華集』부터 1633년의 것 23회 분을 모아 50권 26책으로 간행한 英祖 命編 『皇華集』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인용한 『皇華集』의 작품들은 모두 이 저본에 의거한 것이다. 본고의 부록에서 英祖 命編 『皇華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강 일대를 소재로 한 명나라 사신들의 문학작품을 정리하였다.

II. 한강 유람 記文의 형상화 방식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유람기를 창작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倪謙(1415~1479)의 「漢江遊記」, 祁順(1434~1497)의 「漢江記」, 華察(1497~1574)의 「遊漢江記」, 王夢尹(?~?)의 「漢江船遊圖記」 등이 있다.¹⁰⁾ 이 작품들은 일부 구성과 서술방식을 공유하면서 작가적인 성향과 창작 동기에 따라 서로 개성을 발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작품의 개성과 특징을 유기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창작된 倪謙의 「漢江遊記」를 살펴보면, 도입부-전개부-결말부가 뚜렷이 구분되는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도입부에서는 한강에 대한 간략한 소개·시공간적 배경·함께한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뤄진다.¹¹⁾ 이어서 전개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한강 유람을 즐기는 정황이 펼쳐진다.

난간에 의지하여 둘러보니 강산의 좋은 경치가 모두 자리 사이에 들어왔다. 술이 돌아가기 시작한 다음, 내가 즉석에서 시 3장을 지었는데, 도감에서 먼저 화려한 현판[華扁]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다리다가, 나에게 지은 시를 써서 누 위에 걸라 하기에, 내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고 사양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였는데 한성부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작은 배가 누 아래 메여있으니 한 번

10) 倪謙은 세종 32년(1450)에 명나라 景宗의 즉위를 알리는 조칙을 가지고, 司馬恂과 함께 조선에 왔다. 祁順은 성종 7년(1476)에 張瑾과 함께 사신으로 왔으며, 華察은 중종 34년(1539)에 薛廷寵과 함께 조선에 왔다. 王夢尹은 인조 4년(1626)에 황태자 탄생의 詔書를 반포하기 위하여, 姜曰廣과 함께 조선에 왔다.

11) 倪謙, 「漢江遊記」, 『皇華集』 권1, “去朝鮮城南十里, 而遠有水曰‘漢江’, 自金剛五臺二山, 發源合流, 以入于海, 臨水有樓, 則漢江樓也. 時景泰初元後正月十有四日, 工曹判書鄭君麟趾·漢城府尹金君何邀予, 及黃門司馬先生往游焉. 乃乘馬自南城出, 知院申君叔舟·成君三問暨都官諸公偕往. 迤邐道山蹊田野間, 日垂午, 始至樓上, 國王預遣左副承旨李君季甸·禮曹判書許君詡, 設宴以迓.”

타고 돌아보지 않겠소?’ 하기에, 내가 곧 자리를 치우게 하고 걸어서 배 가운데로 올라갔다. 배는 3척을 연결하였고, 가운데에 작은 집[小軒]을 세우고 띠풀로 덮었는데, 아래는 6, 7명이 앉을 만하며, 걸상을 만들었는데 자못 높았다. 내가 말하기를, ‘강산이 이러한데 도리어 처마뿔[簷角]에 가리어지니, 어찌 나의 바라봄을 넓게 하지 않겠는가?’ 하며, 명하여 낮은 걸상으로 바꾸게 하고, 술잔을 씻고 다시 마시기 시작하였다. 언덕을 따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몇 리를 못 가서 다시 누 아래로 돌아왔는데, 護軍 梅佑가 ‘달이 벌써 뒹습니다.’ 하기에, 그 만 언덕 위로 올라와서 말을 타고 돌아왔다.¹²⁾

이 글은 한강루에서 술을 마시며 시를 읊은 뒤, 뱃놀이를 즐겼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시종일관 담담한 필치를 유지하고 있다. 예겸은 개인적인 흥취의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유람의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서술할 뿐이다. 술에 취해 시를 지을 때의 기분이나 뱃놀이를 할 때의 흥취, 주변 풍경에 대한 묘사나 감탄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걸상을 교체하는 장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달라진 유람의 정경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아쉬움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건조한 상황 묘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서술방식은 예겸의 「漢江遊記」가 지닌 주요한 특징이다. 물론 이들 후에 양화도로 유람을 가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흥취가 좀 더 강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먼 산이 중첩되어 푸른 병풍이 둘러 벌인 것 같은데, 긴 바람은 바다 쪽에서

12) 倪謙, 「漢江遊記」, 『皇華集』 권1, “倚檻縱觀, 江山之勝, 俱在几席. 酒旣行, 予卽席賦詩三章, 都監先製華扁以俟, 索予書所賦詩留于樓, 予以不善書辭之. 酒半, 漢城起曰: ‘有小舟繫樓下, 盍一登以游乎?’ 予卽命撤席, 步登舟中. 舟聯三艦爲之, 中建小軒, 覆之以茅, 下可坐六七八人, 設坐榻, 頗高. 子曰: ‘江山如此, 反爲簷角所障, 曷以豁吾目乎?’ 命易以低榻, 洗盞更酌. 乃緣崖溯流而上, 不數里返樓下, 護軍梅君佑曰: ‘月已升矣.’ 遂陟岸上, 馬歸.” (倪謙의 「漢江遊記」에 대한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랐다.)

불어와서 선들선들 옷에 부니, 호연한 마음 만 리의 물결을 헤치는 뜻이 있으니, 참으로 장쾌한 구경이었다. 조금 있다가 자리에 앉아, 술이 몇 순배 돌아갔는데, 공조 판서가 말하기를, ‘애석한 일은 통소 부는 손[客]이 없어 술을 권함이 없는 것이요.’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풍악은 없지만 술 한 번 들고 시 한 번 읊는 것으로 넉넉히 그득한 정회를 풀 수 있소.’ 하니, 모두들 한 번 웃었다. 어부가 있어 그물질하여 비늘이 번쩍번쩍하는 고기를 잡아다 바치니, 꼬리가 퍼덕퍼덕하며 소반 위에서 움직였는데 빨리 삶게 하였다.¹³⁾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겸은 바람을 맞아 출렁이는 유장한 강 물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참으로 장쾌한 구경이다[眞快觀也]’라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더 이상의 감정이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조판서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통해 당시의 흥취와 이완된 분위기를 잘 전달하면서도, 예겸은 ‘모두들 한 번 웃었다[衆皆一笑]’라는 서술로 그 상황을 마무리 한 뒤, 다른 상황의 객관적인 묘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글 이후에 배에서의 상황과 喜雨亭에서의 연회를 묘사할 때에는 다시 건조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¹⁴⁾

한편 「漢江遊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유람의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한성부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漢城起曰]’, ‘한성부윤이 다시 돌아보며 말하기를[漢城復相顧曰]’, ‘한성부윤이 배에 오르자고 다시 청하기에[漢城復請登舟]’, ‘한성부윤이 멀리 송림을 가리키며 말하기를[漢城

13) 倪謙, 「漢江遊記」, 『皇華集』 권1, “遠山層疊, 若翠屏環列, 長風從海門來, 飄飄吹衣, 浩然有破萬里浪意, 眞快觀也. 少焉, 就坐, 酒數巡, 工曹曰: ‘惜無吹洞簫之客, 以侑觴.’ 予曰: ‘雖無絲竹, 一觴一詠, 足以暢敘幽情.’ 衆皆一笑. 有漁人, 網得錦鱗來獻, 尾撥刺動盤中, 亟命烹之.”

14) 倪謙, 「漢江遊記」, 『皇華集』 권1, “俄頃, 漢城復請登舟, 遂步降平麓, 乘輜抵水濱, 衆已緣崖而下, 先至舟中矣. 登舟趺坐, 酒行無算, 乃沿流而下, 兩腋蕩櫓, 時時水濺面上, 士女奔走聚觀岸上者, 以千數. 黃門曰: ‘何爲其然也?’ 漢城曰: ‘遠人欲一試風景, 故爾已.’ 而漢城遙指松林, 告曰: ‘此中有亭, 曰: 喜雨亭, 孝寧君之別墅也, 亦可一游.’ 又相與捨舟, 遵陸步至亭下, 國王已送酒至. 復開筵浮白飲之, 倏風烈雲暝, 水波汨瀾, 松濤灑灑撼有聲. 予曰: ‘日已晡, 而雨將至矣, 盍歸乎來?’ 遂起乘輜歸, 比至館, 夜漏下數刻矣.”

遙指松林, 告曰』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반복적 서술은 독자에게 예겸이 능동적으로 유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유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한다.

요컨대 예겸의 「漢江遊記」가 지니는 서술방식의 특징은 답답한 상황 묘사와 수동적인 유람 태도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술방식을 사용하는 작가적 의도는 「漢江遊記」의 결말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내가 욱되게도 조정의 사명을 받고 나와서, 잠시나마 여러 군자들과 여기서 놀고 노래하게 되었는데, 며칠이 안 되어 이별하고 가게 되니, 이런 놀이를 계속하려 하여도 원래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곳을 다시 우리들이 한 번 구경하고자 한들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래서 내가 붓으로 적어 잊지 않으려 하며, 가끔 한 번 펼쳐 본다면 만나 놀던 즐거움이 완연하게 항상 눈에 있을 것이니, 역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러나 산천을 구경하고 그 고장의 풍토를 기록하는 것은, 역시 사신 직책의 당연한 일이니 만일 잔치하여 노는 것만 일삼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아닐 것이다. 놀이가 있는 다음날 17일에 적는다.¹⁵⁾

예겸은 한강 유람의 흥취를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적인 사행의 임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는다. 그리하여 유람을 즐기고 기문을 짓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즉, 공적인 임무를 띤 사신이 사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은 자칫 사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듯 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겸은 이러한 점을 경계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사적인 즐거움을 최대한 절제하는 서술방식

15) 倪謙, 「漢江遊記」, 『皇華集』 권1, “今予謬承朝命得, 以暫與諸君子游歌於此, 不數日別去, 欲繼斯游固不可得, 而斯地復欲予輩一賞, 又可得乎? 予用是筆之以識不忘, 時一展觀, 則會遇之樂, 宛然常在目也, 不亦可乎? 雖然登覽山川, 紀其風土, 亦使職之當然也. 苟以爲徒事宴游, 則非知我者矣. 既游之明日十有逾七記.”

으로 「漢江遊記」를 창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구성과 서술방식은 이후 명나라 사신들이 한강유람기를 창작할 때에 중요한 전범으로 작용했다. 얼마 뒤 조선으로 사신 온 祁順의 「漢江記」 또한 작품의 분량만 짧을 뿐, 그 구성과 서술방식은 예겸의 「漢江遊記」와 동일하다. 작품의 도입부는 한강에 대한 간략한 소개·시공간적 배경·함께한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이뤄졌으며,¹⁶⁾ 이어지는 전개부에서도 담담하게 유람의 여정을 서술해 나간다.

몇 리쯤 가서 양화도에 이르니 이곳은 각 도의 양곡이 모이는 곳으로서, 창고가 층층이 솟아 산 형세와 서로 같았다. 또 몇 리쯤 가서 용두산에 오르니, 산이 물가를 내려다보는데, 여러 산봉우리 중에서 특출하여 맞은편 인가와 원근 島嶼간에 나고 드는 배들의 출몰하는 것이 모두 눈앞에 들어온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산 위에는 먼저 장막을 치고 술자리를 벌였으므로,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시 술 두어 순배를 마시고 읍시 한 수를 짓고 돌아왔는데, 성중에 들어오니 누수가 초경을 알렸다.¹⁷⁾

기순은 양화도의 풍경과 용두산에서 내려다 본 경치를 객관적으로 묘사할 뿐, 그곳에서 느낀 정회를 드러내지 않는다. 심지어 술자리에 참석

16) 祁順, 「漢江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朝鮮國城南十裏許, 有水曰‘漢江’. 源出五台·金剛二山, 合流入海. 其景以幽勝聞, 而臨江有樓, 可以登眺. 故前輩自中朝至者, 咸往遊焉. 成化丙申春二月, 余與行人司副張廷玉, 奉使於斯, 甫竣事, 有以遊漢江請者, 諾之. 是月二十有六日, 偕館伴盧贊成·思愼·徐參贊·居正, 自崇禮門出, 歷山·溪·村·逕, 以達江·谿. 國王預遣都承旨柳輕·副承旨任士洪, 設宴樓上, 而尹議政·子雲·金議政·守溫·任中樞·元浚·成中樞·任李判書·承召皆在焉.”

17) 祁順, 「漢江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數里, 至楊花渡, 乃各道軍餉所聚之處, 倉廩層出, 與山勢相高. 又數里, 登龍頭山, 山瞰水涯, 視群峰特出, 隔岸之人家·遠近海島之風帆·出沒, 畢入望中. 時日迫暮, 而山上先已供張開筵, 意不容拒, 乃復酌數巡, 賦詩一律而返. 及抵城中, 更漏作矣.” (祁順의 「漢江記」에 대한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랐다.)

하게 된 것도 조선의 접반사들이 서둘러 연회를 준비해서 마지못해 참석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예겸의 「漢江遊記」와 동일하면서 그 필체의 건조함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아! 조선은 중국과의 거리가 수천 리이므로 왕의 사업이 아니면 올 수 없으니, 한강의 놀이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놀이가 어찌 특별히 기이한 것을 찾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시와 술로 즐기고 노는 것뿐이겠는가? 강을 남쪽은 옛날 백제요 백제의 동쪽은 옛날 신라인데, 웅진도독부는 또 당나라의 유적이다. 그 자취를 찾으며 그 시절을 생각하니, 회고의 생각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내 이번 놀이가 항상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잊을까 하여 여기에 적어 둔다.¹⁸⁾

기순의 「漢江記」도 예겸의 「漢江遊記」처럼 결말부에서 한강 유람이 공적인 임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한강의 지리적 위치를 자국의 역사적 친연성과 결부시키고, 그 속에서 느끼는 회고의 심정을 부각함으로써 사적인 즐거움과는 큰 거리감을 형성한다. 요컨대 기순의 「漢江記」는 예겸의 「漢江遊記」가 지닌 구성과 서술방식을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계승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華察의 「遊漢江記」는 보다 자유로운 구도와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문학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가정 기해(1539) 봄에 나는 도간 채헌 설군과 조선에 사명을 받고 가게 되었는데, 채 이르기도 전에 압록강에 대해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흠모하고 있었다.

마침내 강을 건너 바라보니 압록강이 화이를 구분 지었고 아득히 큰 물결이 일며 의주의 여러 산이 구불구불 동쪽 언덕으로 이어졌으니, 조선의 승경이 모

18) 祁順, 「漢江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嗟夫! 朝鮮去中國數千里, 非王事, 不得至焉, 則漢江之遊, 非偶然耳. 然斯遊豈特探奇覽勝, 留連詩酒而已哉? 江之南, 舊百濟也, 百濟之東, 古新羅也, 而熊津都府, 又唐之遺址也. 訪其跡, 思其時, 蓋有勝懷古者矣. 余念斯遊之不可常, 而恐其或忘也, 於是乎記之.”

두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관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수백 리를 가니 ‘대정강’이라는 강이 있었다. 멀리 청천강을 두르고 있었고 가까이 효성산을 비추고 있었으며, 아스라한 정자가 위에서 아름다운 산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여기서 바라보니 조선의 승경이 모두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관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백 리를 가니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었다. 큰 파도가 하늘까지 닿았고 옆으로는 물결이 평양루까지 이르렀으며 부벽루가 잠겼고 연광정도 담겨 있었으며, 모란의 여러 봉우리는 아래로 강과 호수를 굽어보니, 조선의 승경이 모두 다 이곳에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역관은 “또한 아닙니다. 반드시 한강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한강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하니, 이렇게 대답했다. “조선은 기자가 처음 봉해진 이후로 왕조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옛 도읍인 평양에서 몇 해 있다가 읍기어서 개성으로 갔으며, 또 몇 해를 보내다가 읍기어 한성으로 갔으니, 한성에 도읍한 지가 또 몇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그 승경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 옳도다!”라고 말했다.¹⁹⁾

이 부분은 화찰의 『遊漢江記』 중에서 도입부이다. 화찰은 예겸과 기순의 작품과 같은 형식적인 설명을 과감하게 생략한다. 대신에 역관과의 반복되는 문답적 서술을 통해 한강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화찰이 압록강·대정강·대동강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승경에 대한 감탄을 역관은 차례로 부정하며 마침내 “반드시 한강이어야 합

19)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권27, “嘉靖己亥春, 予與都諫薛君萃軒, 奉使朝鮮, 未至, 聞所謂鴨綠江者, 已竊歎之. 及渡見其限隔華夷, 渺然巨浸, 義州諸山, 迤邐東岸, 以爲朝鮮之勝盡在是矣. 譯者曰: ‘未也.’ 行數百里, 有江曰 ‘大定,’ 遠帶清川, 近映曉星(山名), 危亭上控嘉山, 在望, 以爲朝鮮之勝盡在是矣. 譯者曰: ‘未也.’ 又數百里, 有江曰, ‘大同.’ 洪濤接天, 橫浸平壤樓, 蘸浮碧亭, 涵練光, 牧丹諸峰, 下瞰江滸, 以爲朝鮮之勝盡在是矣. 譯者曰: ‘亦未也. 必也其漢江乎.’ 予曰: ‘漢江惡乎勝?’ 曰: ‘朝鮮. 自箕子始封, 凡幾易世矣. 舊都平壤若干年, 徙而之開城, 又若干年, 徙而之漢城, 都漢城復若干年矣. 迄于今, 未之有改也. 此其勝可知已.’ 予曰: ‘嘻, 有是哉!’” (이 단락의 번역은 신태영, 앞의 책, 172~173쪽을 따랐다.)

니다[必也其漢江乎].”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은 독자들
로 하여금 한강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이어서 역관은 한강이 진정 아름다운 이유가 현재 조선의 수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자연의 승경이 활기찬 대도시의 문명과 어우러진 한강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앞서 살펴본 강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함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화찰이 역관의 설명에 동조하는 부분에서 한강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바로 이와 같은 도입부의 서술방식은 도식적인 구도와 단순 설명식 서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박진감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글의 초점을 한강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에 집중케 하는 문학적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이어지는 서술에서 화찰이 한강의 유람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임을 예감케 한다.

이윽고 배를 띄워 이른바 양화도라는 곳으로 유람을 떠났다. 배의 형상은 정자와 같았는데, 위에는 겹겹의 띠풀을 덮었고, 아래에는 무늬 있는 자리를 깔았으며, 기둥·들보·서까래에는 단청이 빛나고, 사방이 모두 탁 트였는데 흰 장막을 쳐 놓았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강남에선 화려한 배가 집과 같은데, 이에 지금은 집으로 배를 만들었는가?”라고 하였다. 몇 리를 더 가자 서풍이 점점 거세져 배가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내가 장막을 들어 올리고 보니 남산이 눈앞에 보이고 북악산이 뒤에 있으며 용산과 필운대가 좌우로 어리어 비치고 잠두봉을 비롯한 여러 봉우리가 천태만상으로 들쭉날쭉하여 완연히 그림과 같았다. 내가 말하기를 “이것으로도 충분하거늘 어찌 꼭 양화도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강 한가운데서 노 젓기를 멈춘 뒤, 사람들로 하여금 통소를 불게하고 다시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²⁰⁾

20)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권27, “既而放舟, 遊所謂楊花渡者. 舟狀如亭, 上覆重茅, 下布紋席, 棟梁椽桷, 丹青炳耀, 四面皆敞, 懸以素幕. 予謂諸君曰: ‘江南畫船如屋, 乃今屋作船耶?’ 行數里, 西風漸急, 舟不能進, 予攀帷視之, 則見南山在前, 北嶽在後, 龍山彌雲, 映帶左右, 蠶頭諸峰, 起伏萬狀, 宛然如畫. 予曰: ‘卽此足矣, 奚必楊花渡哉?’ 乃弭楫中流, 令人吹洞簫, 復扣舷而歌之.”

이 글은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정황을 묘사한 「遊漢江記」의 전개 부이다. 배의 형상과 유람의 여정을 묘사하는 가운데, 풍광에 대한 묘사와 개인적인 흥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겸은 「漢江遊記」에서 조망을 불편하게 하는 걸상을 교체하는 행위만 묘사했을 뿐,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화찰은 장막을 들어 올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나아가서 화찰은 그 속에서 느낀 흥취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지금의 풍광에 매우 만족한다는 직접적인 언술과 함께 「赤壁賦」의 한 장면²¹⁾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흥취를 마음껏 발산한다.²²⁾ 그리하여 이러한 묘사와 서술은 남산과 북악산, 용산과 필운대, 잠두봉을 감상하던 화찰의 시선과 그 당시의 느낌에 대한 공감력을 크게 높여준다.

이 외에도 화찰은 한강을 유람하며 수시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감상을 구체화하였다. 넓고 거센 강물이 수도를 방어하고 있는 한강의 형상을 남조 시대 陳나라의 孔範이 “장강이라는 천연의 참호가 옛날부터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으니, 오랑캐 군사가 어떻게 날아서 건너 올 수 있겠는가? [長江天塹, 古來限隔, 虜軍豈能飛渡?]”²³⁾라고 말한 것에 빗댄 부분²⁴⁾,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중국 강남지역의 화려한 배에 간접적으로 비유한 부분²⁵⁾, 저물녘 자신이 마주한 풍광을 중국의 명승지인

-
- 21) 蘇軾, 「赤壁賦」, “... 於是飲酒樂甚, 扣舷而歌之, ... 客有吹洞簫者, 倚歌而和之, ...”
- 22) 華察은 시를 통해서도 漢江에서의 유람을 赤壁에서의 유람에 비유했다. (華察, 「遊漢江次雲岡韻」其二, 『皇華集』 권25, “博覽曾經涉九丘, 漢江風物近滄洲. 亭臺集巖雲中起, 島嶼依微水上浮. 日暮艤舟臨野渡, 月明吹角滿城樓. 涼颺却似清秋色, 回首翻疑赤壁遊.”)
- 23) 『南史』, 「孔範傳」, “... 隋師將濟江, 群官請爲備防, 範奏曰: ‘長江天塹, 古來險隔, 虜軍豈能飛渡? ...’”
- 24)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권27, “... 至漢城彙爲巨浸, 設險守國, 恃以爲固, 所謂長江天塹, 庶幾有焉. ...”
- 25)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권27, “... 舟狀如亭, 上覆重茅, 下布紋席, 棟梁椽桷, 丹青炳耀, 四面皆敞, 懸以素幕. 予謂諸君曰: ‘江南畫船如屋, 乃今屋

嶽陽과 洞庭湖에 건주는 부분²⁶⁾이 그것이다.

또한 화찰의 「遊漢江記」는 그 결말부도 주목된다.

동방의 조선은 중원의 땅이 아니거늘 지역이 다스러지고 풍속이 화목하며 백성들이 생업을 편안하게 영위하며 바다에 풍파가 일지 않으니, 성스러운 교화가 미치는 곳은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증험할 수 있다. 우리 성스러운 천자께서 어찌 하루라도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범중엄이 말하기를 “강호의 먼 곳에 거처하면 임금을 걱정했다”라고 했다. 무릇 강호에 거처해서도 그 근심이 몹시 큰데, 하물며 중국을 떠나 사해의 밖에 있으면서 태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모든 간원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즐거움을 다하지 못하겠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배에서 내려 육지를 따라서 달빛을 받으며 돌아왔다.²⁷⁾

여기에서도 한강 유람의 공적인 임무를 강조하는 구성은 예겸이나 기순의 작품과 동일하다. 그런데 예겸과 기순이 사적인 유람이 아니라는 자기 변호와 공적인 유람의 당위성을 직접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비해, 화찰은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화찰은 글의 전반부에서 한강 유람의 화락한 정취가 늘 천하의 태평성대를 위해 노력하고 근심하는 천자의 은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어서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 한 뒤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말로 유명한 범중엄의 「岳陽樓記」에 나오는 구절을 직접 인용하여, 성스러운

作船耶?’ …”

26)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권27, “… 把酒臨風, 劃然長嘯, 以爲嶽陽洞庭, 殆不是過. …”

27)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권27, “朝鮮東方, 非中原之地, 而田野治, 風俗和, 百姓安業, 海不揚波, 聖化所及, 無間遐邇, 太平之盛, 於斯驗之矣. 我聖天子得無有日中之憂乎? 范仲淹曰: ‘居江湖之遠則憂其君.’ 夫居江湖其憂已殷, 而況去中國蹈四海之外, 能怱然乎哉? 乃顧謂都諫君曰: ‘樂不可極, 可以已矣.’ 遂舍舟從陸, 乘月而還.”

천자를 향한 敬慕의 감정과 송구스러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유람을 즐기지 못하는 자신의 심경을 직접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감개한 느낌의 여운을 발산하며, 사적인 유람을 차마 다하지 못하는 사신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요컨대 화찰의 「遊漢江記」는 예겸의 「漢江遊記」와 기순의 「漢江記」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짜임새 있는 구성, 적극적이고 감각적인 묘사, 세련된 문학적 표현력 등이 돋보인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작가적 역량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또한 명나라 사신들의 사행이 관례화되면서 그들이 한강을 유람하고 표현할 때 느끼는 심적 부담이 줄어든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강 유람과 관련해서 살펴볼 기문은 王夢尹의 「漢江船遊圖記」이다. 이 글은 1626년에 李廷龜가 명나라 사신 姜曰廣·王夢尹과 함께 한강을 유람한 일을 기념하여, 이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 중국으로 돌아가는 두 사신에게 보내 한마디 말을 청하자²⁸⁾, 이에 왕몽윤이 기문을 지어 보내온 것이다.

따라서 王夢尹의 「漢江船遊圖記」는 앞선 작품들보다 글의 제재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구성과 서술방식은 앞선 작품들의 양식을 본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입부와 결론부에서 사신으로서의 공적 본분을 강조하고 천자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뜻을 강조하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한강 유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동일하다.²⁹⁾

28) 李廷龜, 「簡寄漢江船遊圖姜(曰廣)王(夢尹)兩天使(丙寅僉接時)」, 『月沙集』 권 34, “... 別後滬暑敲煩, 不審途間體履珍順否? 仍念漢江陪遊, 眞一勝迹, 敢倩龍眠, 模寫一幅, 仰備清玩. 倘於燕閑, 時時一覽, 一尊談笑, 萬里不隔, 此身長在春風座上也. 幸留惠一語, 以賁湖山, 則益爲傳家榮輝之寶. ...”

29) 王夢尹, 「漢江船遊圖記」, 『皇華集』 권47, “今皇帝御宇之五年, 以皇子誕生, 布德惠于天下, 尹適承引駕之役, 帝東顧曰: “吁! 白岳漢江, 沐浴王化久矣. 汝其副館臣往海邦, 昭我令德, 兼視遼衆之在朝鮮者.” 越明年, 始抵王都, 禮既遊于漢江, 修故事也. …… 噫! 毛師露宿于鐵山, 遼衆腹枵于鮮島, 天子拊髀而嘆,

반면에 「漢江船遊圖記」는 배를 타고 한강을 유람할 때의 풍광과 정회를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이 돋보인다.

마침내 다시 유쾌하게 배에 올라 만경창과 속을 훨훨 날아다니니, 구슬로 장식한 신이 이리저리 엮히고 술잔과 안주접시가 뒤섞이며, 맑은 노래는 흰 구름과 함께 나란히 흐르고, 춤추는 소매는 물빛과 함께 서로 엇갈렸다. 통역이 너무 잦아도 수고로워 하지 않고 말이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이해되어, 오로지 서로 바라보며 웃을 뿐이었다. 이윽고 햇살이 조금씩 저물어 달빛이 어스듯 밝아질 즈음에 멀리 동쪽 산을 바라보니, 옥으로 장식한 누대 같고 은빛 대궐 같고 미인이 화장을 하는 것 같았는데, 배의 나는 듯 한 용마루와 화려하게 꾸민 익새 장식이 물빛의 위아래로 출렁이니, 참으로 푸른 바다에 떠 있는 듯 은하수를 건너가는 듯 하거늘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³⁰⁾

이 글은 배를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활기찬 정황과 아름다운 주변의 풍광, 그 속에서 한껏 흥이 오른 작자의 심경을 실감나게 잘 묘사하고 있다. ‘快然’으로 시작해 ‘不亦樂哉’로 끝나치며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발산하는 가운데, 또한 ‘清歌與白雲竝流, 舞袖偕水光交亂’, ‘譯既頻而勞不憚, 語未傳而神已解’의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산의 모습을 여러 가지 화려한 사물에 연속적으로 비유한 부분과 배를 타고 물살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호방하고 장대한 풍경에 비유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한강 유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실감과 생동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표현력은 王夢尹이 「漢江船遊圖」를 통해

司農仰屋而籌, 予乃撫時戀景, 騁目快心, 樂予之樂耶? 樂人之樂耶? 雖然, 予使臣也. 假令過歸言邁, 白岳漢江間父老子弟, 不獲望見使者之顏色而懷想天子之明德, 不滋予懼乎? 于是主賓歡甚, 執觥更酌, 載月而歸于南宮.”

30) 王夢尹, 「漢江船遊圖記」, 『皇華集』 권47, “遂復快然登舟, 廻翔萬頃中, 珠履繽紛, 杯盤雜錯, 清歌與白雲竝流, 舞袖偕水光交亂. 譯既頻而勞不憚, 語未傳而神已解, 惟有相視而笑耳. 既而流景微曛, 皓魄乍明, 遙望東山, 如瑤臺如銀闕如美人之臨粧, 而飛薨彩鷁, 蕩漾于波光上下間, 眞如泛碧海而槎天漢, 不亦樂哉?”

유람의 체험을 더욱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었던 것과 묘사과정에서 그림이 주는 시각적 효과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天子를 중심으로 한 사대외교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에 당시 외교를 수행하는 사신들은 ‘人臣無外交’³¹⁾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했다. 즉, 당시 사신들은 양국 군주의 의지를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벌이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금지되었던 것이다.³²⁾ 따라서 공무 이외의 사사로운 행동을 일삼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사대질서가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파견되었던 조선 초기 명나라 사신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를 더욱 삼갈 수밖에 없었다. 예겸의 「漢江遊記」와 기순의 「漢江記」가 견지하고 있는 절제된 내용과 정형화된 구성, 소극적인 표현기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외교적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행이 관례화되자, 사신들도 문학적 표현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 화찰의 「遊漢江記」와 왕몽운의 「漢江船遊圖記」에서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용과 파격적인 구성, 적극적인 표현기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Ⅲ. 한강 유람 漢詩의 형상화 방식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 유람은 일반적으로 漢江樓(濟川亭)에서의 연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바로 이어서 뱃놀이를

31) 이 개념은 남의 신하 된 자는 함부로 외국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서 『禮記』, 「郊特牲」,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에서 비롯되었다.

32) 정동훈, 「高麗-明 외교문서 서식의 성립과 배경」, 『한국사론』 56, 서울대 국사학과, 2010, 147쪽 참고.

즐기며 楊花渡까지 내려가 蠶頭峰에 오르거나 望遠亭을 찾기도 하는 것이 주요 경로였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 사신들이 지은 漢詩들을 살펴보면, 묘사나 서정의 표현 방식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즉, 이 당시 명나라 사신들이 지은 한시들은 누정이나 배 안에서 보이는 풍경 묘사, 술과 어우러진 연회의 분위기, 유람 중 느끼는 흥취, 조선 관료들과의 동질감 또는 이별의 아쉬움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누정에서의 수창과 뱃놀이를 중심으로 한 연회의 형식 및 한강 유람 경로가 비슷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 조선 문인들의 인구에 회자된 작품, 다른 작품들에 비해 형상화 방식이 돋보이거나 개성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한강 유람의 경로에 맞춰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登漢江樓 次議政徐君佳作」

「한강루에 올라. 議政 서거정의 아름다운 작품에 차운하다」

樓前風捲白雲開	누대 앞에 바람이 불어와 흰 구름 걷히니
坐看群山紫翠堆	앉아서 못 산들 바라봄에 자취빛 쌓였네
百濟地形臨水盡	백제의 영토 경계는 한강물에서 다하였고
五臺泉脈自天來	오대산의 샘 줄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題詩愧乏崔郎句	시를 지어도 崔顥의 구절만 못해 부끄럽지만
對酒難辭太白杯	술을 대하면 李白의 잔도 사양하기 어렵구나
花鳥滿前春景好	꽃과 새가 눈앞에 가득해 봄 경치 좋으니
不妨談笑更遲回 ³³⁾	담소를 나누다 늦게 돌아간들 어떠하리

祁順이 지은 이 시는 제목처럼 徐居正의 작품에 차운을 한 것이다. 기순은 구름이 걷히며 울긋불긋한 산세가 펼쳐지는 장면으로 작품을 연 뒤, 누대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과 자신의 정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

33) 『皇華集』 권9.

중에서도 특히 함련과 경련의 對偶가 공교롭게 잘 이루어졌다. 함련에서는 한강과 관련된 고유 명사를 사용하여 실감을 높였는데, 3구와 4구가 각각 한강의 시공간적 유장함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경련에서 시를 짓는 일은 최호의 「黃鶴樓」만 못해 부끄럽지만, 술은 이백 못지않게 마신다고 표현함으로써 연회의 흥겨운 분위기를 복돋우고 있다.

『龍泉談寂記』에 따르면 서거정이 자신의 작가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미리 지어 놓은 “바람과 달은 황학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안개 낀 파도는 연신 흰 갈매기를 보내오네[風月不隨黃鶴去, 煙波長送白鷗來]”라는 구절을 읊자, 기순이 즉석에서 이 시의 함련을 읊어 좌중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³⁴⁾

사실 서거정의 구절은 최호가 지은 「黃鶴樓」³⁵⁾ 중에서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나버려[昔人已乘黃鶴去]”라는 1구와 “몰안개 강 위로 피어올라 시름겹게 하네[煙波江上使人愁]”라는 8구를 변용시킨 것으로서 매우 공교로운 표현이다. 그러나 서거정이 ‘風月’과 ‘煙波’라는 추상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을 쓴 것에 비해, 기순은 짧은 시간 안에 ‘百濟’와 ‘五臺’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절을 사용하여 대우를 맞췄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던 것이다.³⁶⁾ 또한 『龍泉談寂記』에서는 당시 곁에 있던 金守濫이 같은 차운시를 지으면서 수련의 ‘堆’자 운에 막혀 곤혹을 치른 일도 기록하고 있다.³⁷⁾

-
- 34) 金安老, 『龍泉談寂記』, “竣使事明日, 四佳以漢江之遊請, 順曰: ‘諾.’ 在途酬唱, 客先主人, 明者江上, 主人先客, 以起興可也. 四佳預述一律, 并錄夙製永川明遠樓詩韻曰: ‘當豎此老降旛矣.’ 到濟川亭, 酒未半, 於座上微吟, 若爲構思之狀, 索筆書呈一聯, 有曰: ‘風月不隨黃鶴去, 煙波長送白鷗來.’ 順卽席走毫曰: ‘百濟地形臨水盡, 五臺泉脈自天來.’ 顧四佳曰: ‘是否.’ 筆鋒橫逸, 不可枝梧, 四座改色沮.”
- 35) 崔顥, 「黃鶴樓」,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 36) 서거정이 지은 작품의 자세한 분석과 비교는 신태영, 앞의 책, 94~101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운은 차운과 즉흥시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함련과 경련의 돋보이는 대우를 바탕으로 한강루에서의 풍경과 흥취를 실감나게 잘 표현하였던 것이다.

「登漢江樓	「한강루에 올라」
東國有高樓	동쪽 나라에 높은 누각 있으니
樓前漢水流	누각 앞으론 漢江이 흐르네
光搖青雀舫	햇빛은 푸른 물새를 그린 배에 어른거리고
影落白鷗洲	그림자는 흰 갈매기 노니는 모래톱에 떨어지네
望遠天疑盡	멀리 바라보자니 하늘이 다한 듯하고
凌虛地欲淨	허공으로 치솟아 땅이 떠오르려 하는데
八窓風日好	팔방이 탁 트인 창으로 드는 바람과 햇별이 좋아
下榻重淹留 ³⁸⁾	결상을 내려 다시금 머무노라

이 시는 張寧(1426~1496)이 지은 것인데, 화창한 날 한강변의 풍경과 거기에 매료된 작자의 흥취가 잘 표현되었다. 특히 이 시의 함련과 경련은 많은 조선 문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成倪은 『慵齋叢話』에서 이 작품을 인용한 뒤, 장녕의 시문이 전체적으로 훨훨 나는 듯[飄飄]하며, 구름을 뚫고 속세를 벗어나려는 듯[凌雲出塵] 한 생각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다고 비평했다.³⁹⁾

실제로 이 작품의 경련에서 탁 트인 시야와 우뚝 솟은 누대의 위용을 묘사하며 ‘天’과 ‘地’, ‘遠’과 ‘虛’의 대비로 공간감을 확장시키고, ‘땅이 떠오르려 한다[地欲淨]’는 역동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성현의 비평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준다.

37) 金安老, 『龍泉談寂記』, “乖崖亦預席當和, 押有堆字, 苦吟思涸, 攢眉顧人曰: ‘思耗意竭, 吾其死矣.’”

38) 『皇華集』 권5.

39) 成倪, 『慵齋叢話』 권1, “大抵詩文皆飄飄然有凌雲出塵之思, 非他俗子所可彷彿也.”

이렇게 해서 漢江樓(濟川亭)에서의 한바탕 연회가 끝나고 나면, 명나라 사신들은 곧이어 배를 타고 양화도로 내려갔는데, 이때 즐기는 뱃놀이도 빠뜨릴 수 없는 유흥이었다.

「漢江春泛	「한강에서 봄날 배를 띄우고
纜登傑構縱奇觀	웅장한 누각에 올라 뛰어난 경관 맘껏 보고
又棹樓船泛碧湍	다시 다락배를 노저어 푸른 물에 떠다니네
錦纜徐牽綠翠壁	비단 닻줄을 천천히 끌며 푸른 암벽을 돌면서
玉壺頻送隔離欄	옥 술병을 아로 새긴 난간 너머로 자주 권하네
江山千古不改色	천고에 걸쳐 강산은 그 빛깔 그대로인데
賓主一時能盡歡	한때의 손님과 주인은 원 없이 즐거워하네
遙想月明人去後	달이 밝고 사람들이 가고 나면
白鷗飛占鏡光寒 ⁴⁰⁾	흰 갈매기 날아와 거울처럼 맑고 찬 강을 차지하겠지

倪謙이 지은 이 시는 그의 作詩 수준을 알보던 당시 집현전 학사들을 주눅 들게 한 작품이다.⁴¹⁾ 이 작품은 칠언율시의 형상화 방식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뱃놀이의 풍경과 정취를 잘 전달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상을 배치하고 전개하는 章法에서 起承轉合의 구성이 안정적이다. 이에 수련에서 破題와 함께 詩想을 일으켜 한강에 배를 띄우는 정황을 설명한 뒤, 함련에서 수련을 이어받아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을 묘사했다. 나아가서 경련에서는 함련과 상응하면서도 전환감

40) 『皇華集』 권1.

41) 成倪, 『慵齋叢話』 권1, “景泰初年, 侍講倪謙給事中司馬詢到國. 詢不喜作詩, 謙雖能詩, 初於路上, 不留意於題詠, 至謁聖之日, 謙有詩云: ‘濟濟青襟分左右, 森森翠柏列成行.’ 是時集賢儒士全盛, 見詩哂之曰: ‘真迂腐教官所作, 可袒一肩而制之.’ 及遊漢江, 作詩云: ‘纜登傑構縱奇觀, 又棹樓船泛碧湍. 錦纜徐牽綠翠壁, 玉壺頻送隔離欄. 江山千古不改色, 賓主一時能盡歡. 遙想月明人去後, 白鷗飛占鏡光寒.’ 又作「雪霽登樓賦」, 揮毫洒墨, 愈出愈奇. 儒士見之, 不覺屈膝. 館伴鄭文成不能敵, 世宗命申泛翁成謹甫, 往與之遊, 仍質漢韻. 侍講愛二士, 約爲兄弟, 相與酬唱不輟, 竣事還也, 拭淚而別.”

을 쥐 뱃놀이를 즐기는 정취를 표현하고, 미련에서는 여운을 깃들여 전체적인 시상을 마무리 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칠언율시의 기본 원칙인 함련과 경련의 對偶도 정교하다. 함련은 닳줄과 술병, 암벽과 난간을 대비하면서 ‘錦’과 ‘玉’, ‘翠’와 ‘雕’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해 화려하고 자유로운 뱃놀이의 풍경을 부각시켰다. 또한 ‘徐’와 ‘頻’의 부사, ‘牽’과 ‘送’의 동사가 反對를 이루어 對偶의 정교한 느낌을 극대화 했다. 아울러 경련은 강산과 인간의 대비, ‘千古’와 ‘一時’의 대비를 통해 유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짧은 인간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흥취를 잘 표현했다. 이어서 미련에서는 자신들이 떠난 뒤 다시 맑고 고적해질 한강의 풍경을 환기시키며, 잔잔한 여운을 발산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성과 표현기법으로 인해, 이 작품이 당시 문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江遊樂趣何限, 適有拙作, 未盡所懷, 再賦七言一律」

「강에서 노니는 즐거운 흥취에 어찌 한이 있으랴? 마침 내가 지은 졸작이 있으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였기에 다시 칠언율시 한 수를 짓는다」

倚罷高樓未盡情	높은 누대에서 내려와도 정이 다하지 않아
又携春色泛空明	다시 봄빛을 이끌고 투명한 강물에 배를 띄웠네
人從竹葉杯中醉	사람은 죽엽잔 오가는 중에 취하고
舟向楊花渡口橫	배는 양화도 어구를 향해 내려가네
東海微茫孤島沒	동해 ⁴²⁾ 바다 아스라이 외로운 섬 잠겼는데
南山蒼翠淡雲生	남산 푸르른 곳에선 옅은 구름 일어나네
從前會得江湖樂	이전부터 강호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지만
今日襟懷百倍清 ⁴³⁾	오늘의 마음 속 회포가 백배나 더 맑구나

『龍泉談寂記』에 의하면, 이 시는 기슭이 양화도에 다다를 때 읊은 작

42)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서해가 동해가 되므로,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43) 『皇華集』 권9.

품이라고 한다. 특히 ‘楊花’라는 지명에 맞춰 같은 식물 종류인 ‘竹葉’을 사용하여 대우를 맞춘 함련에서는 詩作의 재치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조선 문인들은 그 기묘하고 민첩한 솜씨에 감탄했다고 한다.⁴⁴⁾ 이어서 기순은 양화도에서 보이는 서해바다의 어귀와 남산의 풍경을 묘사한 뒤, 뱃놀이 과정에서 한껏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어 작품을 마무리 하였다.

이렇게 해서 양화도에 배가 정박하면, 명나라 사신들은 양화나루 곁에 있는 잠두봉과 망원정을 찾아 흥취를 이어나갔다.

「蠶頭峰	잠두봉에서
千山列隊飲江濱	일천 산들이 늘어서서 강가의 물을 마시는데
驤首層霄此不羣	하늘 높이 머리를 쳐든 이 모습 남다르네
平巘可棲樓十二	평평한 봉우리는 신선의 十二樓가 깃들 만 하고
蒼巖能控水滄沱	길푸른 바위는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제압할 수 있네
座中景色窺天畔	자리 가운데서 경치는 하늘가까지 바라보이고
杯底雲光帶夕曛	술잔 아래 구름은 석양을 두르고 있네
最是一帆風更好	무엇보다 외론 돛배 바람에 더욱 멋지니
浪花飛作雪紛紛 ⁴⁵⁾	물보라꽃 흩날리며 눈이 펄펄 내리는 듯

「登喜雨亭	「희우정에 올라」
蒼松深處一亭幽	푸른 솔숲 깊은 곳에 정자 하나 그윽한데
艤櫂來登豁醉眸	배 대고 올라보니 취한 눈동자 확 트이네
渡口風波何日定	양화도 입구의 풍파는 언제 쫓 진정되려나

44) 金安老, 『龍泉談寂記』, “操觚瀝精, 不暇流眄, 酉日半衙, 夕波微興, 倚齋瞑目之頃, 舟至蠶頭峯下. 戶部開目曰: ‘是何地名?’ 舌者曰: ‘楊花渡.’ 卽吟一律曰: ‘人從竹葉杯中醉, 舟向楊花渡口橫.’ 四佳次云: ‘山似高懷長偃蹇, 水如健筆更縱橫.’ 二公巧速略相敵.”

45) 『皇華集』 권40.

海門雪練幾時收	바다 어귀의 눈빛 물결은 어느 때 걷힐까
萬家村墅連南浦	일만 집 촌락은 남쪽 포구에 잇닿았고
百雉山城控上游	일백 성가퀴 산성은 요충지를 막고 있네
撫景浩懷拚一醉	풍경으로 호탕해진 회포 한바탕 크게 취하리니
從教蘿月映汀洲 ⁴⁶⁾	덩굴 사이로 뜬 달이 모래톱을 비치거나 말거나

첫 번째 시는 梁有年이 잠두봉에 올라 지은 작품이고, 두 번째 시는 倪謙이 회우정(망원정)에서 지은 작품이다. 먼저 양유년의 작품을 살펴 보면, 情과 景의 교직을 중시하는 한시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에서 벗어난 寫景의 전개방식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전반부 4구에서는 누에가 머리를 들고 있는 듯 한 잠두봉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여기서 특히 그 우뚝하고 당당한 위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잠두봉의 생동감을 자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어서 후반부 4구에서는 잠두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묘사하였다. 여기서도 하늘을 향한 묘사와 한강을 향한 묘사를 안배하여, 시아가 탁 트이면서 한강이 한 눈에 들어오는 잠두봉의 전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를 살펴보면, 예점은 이전부터 마셔온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회우정(망원정)에 오른다. 이에 함련에서 출렁이는 양화나루와 포말이 이는 바다 어귀를 묘사한 뒤, 경련에서는 주변의 한양 풍경을 묘사한다. 그리고 미련에서 한강 유람을 통해 고조된 흥취를 깨지 않고, 날이 저물어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장면은 이미 술과 풍류에 잔뜩 취한 상태로 회우정(망원정)에 오르는 정황과 회우정(망원정)에서의 연회를 끝으로 온종일 이어진 한강 유람이 마무리되는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상으로 명나라 사신들이 한강 유람을 漢詩로 형상화 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유람의 방식과 그에 따른 풍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품들은 율시의 대우법과 장법을 공교롭게 구사하는 가운데

46) 『皇華集』 권1.

풍경 묘사와 서정 표출을 적절하게 가미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수준 높은 意境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한편, 명나라 사신들과 관련해서 별도로 살펴봐야 할 한강의 명소가 있으니, 바로 狎鷗亭이다. 주지하듯이 압구정은 韓明澮(1415~1487)가 한강 남단에 세운 정자이다. 한명회는 癸酉靖難(1453) 이후 여의도에 압구정을 지었다가 성종 7년(1476)에 아름다운 東湖가 바라보이는 한강 남쪽으로 옮겼다.⁴⁷⁾ 따라서 왕실 소유의 정자였던 제천정·망원정과 달리 개인 소유의 정자인 압구정이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 유람에서 정식 코스가 될 수는 없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은 당시 명나라 사신들에게 소문이 났으며, 일부 중국 사신들이 조선에 왔을 때 둘러보는 명소가 되었다.⁴⁹⁾ 이는 한명회의 각별한 노력에 의한 것이었는데, 한명회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예겸에게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다음 사행에서는 명나라 문인들로부터 압구정에 관한 시를 받아서 詩軸으로 만들었다.⁵⁰⁾ 이에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京畿·廣州牧」에는 예겸의 「狎鷗亭

47) 압구정의 내력과 한명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142~161쪽.)

48) 실제로 중국 사신 鄭同이 압구정에서 연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한명회가 궁중의 遮日을 가져다 압구정에 치고 싶어 했을 때, 성종은 압구정이 아닌 왕실 소유의 제천정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도록 傳旨을 내렸다. 여기에 한명회가 성종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제천정의 연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한명회는 파직을 당했다가 이듬해 복권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2년 신축(1481) 정묘일(6월24일) ; 『조선왕조실록』, 성종 12년 신축(1481) 무진일(6월 25일) ; 『조선왕조실록』, 성종 12년 신축(1481) 기사일(6월 26일) 참고.)

49) 『皇華集』에는 陳嘉猷의 「題狎鷗亭」(칠율 1수), 祁順의 「題狎鷗亭」(칠율 1수), 張瑾의 「狎鷗亭」(칠절 1수)이 수록되어 있다.

5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京畿·廣州牧」, “上黨府院君韓明澮, 構亭於豆毛浦南岸. 奉使入大明, 請名於翰林學士倪謙, 謙命以狎鷗而爲記. 其後乙未歲, 又奉使入大明, 求詩於樞紳, 武靖侯趙輔等以謂‘此狎鷗亭主人也.’ 共贈以詩, 亭名, 遂聞於中朝.” ;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 을미(1475) 임오일(6월 5일) 참고.

記」와 중국과 조선의 문인들이 지은 압구정에 관한 시가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수록된 작품들의 시상은 대부분 예겸의 「狎鷗亭記」⁵¹⁾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機心이 하나도 없는 바닷가 주민에게 갈매기가 거리낌 없이 날아와 친하게 노닐었다는 고사⁵²⁾에서 비롯된 ‘狎鷗’의 의미는 대부분 시작품의 중심 시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京畿·廣州牧」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압구정에 와 본적이 없는 상당수의 명나라 문인들도 일반적인 강가의 풍경에다가 정자 이름에 담긴 상징적 고사를 결합하여 시를 지었던 것이다. 본고는 그 중에서 조선에 직접 사신을 왔던 기순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題狎鷗亭	압구정에 쓰다,
瀟灑衡茅漢水東	맑고 깨끗한 덧집이 한강 동쪽에 있는데
主人情與白鷗同	주인의 심정은 흰 갈매기와 같다네
尋盟肯負沙邊侶	거듭 다짐하니 어찌 모래가 짝을 저버릴 수 있으랴
易慮深慚海上翁	생각을 바꾼다면 바닷가 노인에게 매우 부끄러우리
野渡浮沈千頃雪 ⁵³⁾	들 나루터엔 천 이랑의 눈발이 떴다 잠기건만

* 한편 이종묵은 예겸이 「狎鷗亭記」에서 자신이 압구정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명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종묵, 위의 책, 145쪽.)

- 51) 예겸의 「狎鷗亭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한강에 대한 설명과 10여 년 전 사신으로 갔을 때의 추억에 대한 회고 ② 한명회로부터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는 정황 ③ 狎鷗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한 설명 ④ 한명회에게 狎鷗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권면함 ⑤ 송나라 때 재상이었던 韓琦가 정자 이름을 狎鷗로 짓자 구양수가 화답한 일화를 들고, 한명회와 자신의 관계를 이에 비견함
- 52) 『列子』, 「皇帝」, “海上之人, 有好鷗鳥者. 每旦, 之海上, 從鷗鳥遊, 鷗鳥之至者, 百數而不止. 其父曰, ‘吾聞, 鷗鳥, 皆從汝游, 汝取來, 吾玩之.’ 明日, 之海上, 鷗鳥, 舞而不下也.”
- 5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京畿·廣州牧」에서는 ‘千頃雪’이 ‘千頃浪’으로 되어

釣船來往一絲風 낚싯배는 한 줄기 바람을 타고 오가네
 相門德業光前後 재상 가문의 덕업이 앞뒤로 빛나니
 不但名亭比魏公⁵⁴⁾ 단지 이름난 정자만 위국공과 닮은 것이 아니라네

압구정을 제재로 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機心’이라는 시어를 노골적으로 표면에 내세우는데 비해, 이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신선한 느낌을 준다. 대신에 풍경 묘사와 전고 활용을 적절히 배합하여 시적 형상화에 이르고 있는데, 먼저 기운은 수련과 함련에서 ‘狎鷗’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수련에서 정자의 주인이 무언가를 꾸미고 속이려는 機心이 없이 흰 갈매기처럼 순수한 마음 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어서 함련에서 정자의 주인이 이러한 마음 상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련에 이르러, 한강의 풍경 묘사에 집중함으로써 시상의 전환감을 자아내었다. 여기서 6구는 벼슬을 마다하고 은거하며 낚시질을 하던 嚴光의 고사를 연상시키는데,⁵⁵⁾ 이는 거칠고 변화무쌍한 속세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5구와 대비되어, 무욕의 한가로운 의경을 극대화한다. 이후 기운은 미련에 이르러 정자의 주인이 정자 이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韓琦를 닮았다고 칭송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이후 세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예종과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와중에 그는 4차례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특히 그의 사행은 특별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회는 사신의 신분을

있다.

54) 『皇華集』 권9.

55) 『後漢書』 권113, 「逸民列傳·嚴光傳」, “嚴光字子陵, 一名遵, 會稽餘姚人也. 少有高名, 與光武同遊學. 及光武即位, 乃變名姓, 隱身不見. 帝思其賢, 乃令以物色訪之, 後齊國上言: ‘有一男子, 披羊裘釣澤中.’ 帝疑其光, 乃備安車玄纁, 遣使聘之. …… 除爲諫議大夫, 不屈, 乃耕於富春山, 後人名其釣處, 爲嚴陵瀨焉.”

이용해서 자신의 정자가 지닌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즉, 한명회는 성씨의 동일함, 정자이름의 동일함을 내세워 스스로를 송나라의 명재상 韓琦에게 비견하려 했다. 이를 통해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를 포장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명나라 문인들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결국 명나라 사신들에게 한강변의 압구정이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IV. 결론

조선시대 王都의 배후에 위치했던 한강은 교통·경제·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넓은 강폭을 띠고 굽이쳐 흐르는 모습, 그에 따라 형성된 드넓은 백사장과 깎아지른 절벽, 한눈에 들어오는 주변의 수려한 산세, 수도의 활발한 도시적 분위기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은 조선조 문인 사대부들은 물론, 명나라 사신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하여 명나라 사신들이 한양에 왔을 때, 그들에게 한강 유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접대 행사가 되었다. 당시 한강 유람은 왕실 소유의 漢江樓(濟川亭)에서 거창한 연회를 펼친 뒤, 배를 타고 楊花渡와 蠶頭峰 일대를 거쳐 다시 왕실 소유의 望遠亭(喜雨亭)에서 마무리 연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이때 화려한 연회와 유람의 과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조 문인들과 詩를 수창하며 한강의 풍경과 개인적인 흥취를 만끽하였다. 또한 일부 명나라 사신들은 한강 유람을 記文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56) 한명회의 관직 생활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강제훈, 「조선 초기 勳戚 韓明澮의 관직 생활과 그 특징」, 『역사와 실학』 43, 역사실학회, 2010.)

이에 명나라 사신들은 기문을 지을 때, 사신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자의식을 견지하면서 한강 유람의 여정과 그 풍광의 아름다움 및 개인적인 흥취를 서술하였다. 그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한강 유람을 했던 예겸의 「漢江遊記」와 기순의 「漢江記」는 절제된 내용과 정형화된 구성을 바탕으로, 풍경 묘사와 개인적인 흥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사행이 어느 정도 관례화 된 뒤에 한강 유람을 했던 화찰의 「遊漢江記」와 왕몽운의 「漢江船遊圖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용과 파격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풍경 묘사와 개인적인 흥취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비해서 명나라 사신들이 한강 유람을 하면서 지은 시작품들은 순간적인 풍경의 포착과 즉각적인 흥취의 표출이 두드러졌다. 다만 유람의 방식과 그에 따른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동일한 시적 체재를 바탕으로 비슷한 형상화 방식을 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품들은 율시의 대우법과 장법을 공교롭게 구사하는 가운데 풍경 묘사와 서정 표출을 적절하게 가미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수준 높은 意境을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조선조 문인들에게도 큰 문학적 자극이 되었다.

또한 한명회는 사신의 신분으로 명나라에 가서 예겸에게 ‘狎鷗’라는 정자 이름과 기문을 받아내었으며, 그 다음 사행에서는 명나라 문인들로부터 압구정에 관한 시를 얻어 詩軸으로 만들었다. 이는 압구정이라는 자신의 정자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를 포장하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압구정은 왕실 소유의 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사신들에게 한강변의 명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參考 文獻>

- 『皇華集』(英祖 命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京畿·廣州牧」
權應仁, 『松溪漫錄』
金萬重, 『西浦漫筆』
金安老, 『龍泉談寂記』
成 倪, 『慵齋叢話』
柳夢寅, 『於于野談』
李廷龜, 『月沙集』
- 강제훈, 「조선 초기 勳戚 韓明澮의 관직 생활과 그 특징」, 『역사와 실학』 43, 역사실학회, 2010.
김지희, 「조선시대 漢江圖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김한규 옮김, 『사조선록 역주』, 소명출판, 2012.
박원고,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1권, 197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漢江史』, 1985.
신영주,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 『한문학보』 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신태영,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이종묵,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회, 2001.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이혜순, 「『皇華集』 수록 明 사신의 使行詩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시가연구』 10집, 한국시가학회, 2001.
정동훈, 「高麗-明 외교문서 서식의 성립과 배경」, 『한국사론』 56, 서울대 국

사학과, 2010.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 1985.

홍찬유, 『역주 시화총림』, 통문관, 1993.

<부록>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강 일대를 소재로 한 명나라 사신들의 문학작품

저자	제목	출 전	저자	제목	출 전
倪謙	「登漢江樓卽席偶成」 (칠율 3수)	권1	董越	「漁舟絡繹獻魚戲詠用 博同遊一粲」(오율 1수)	권 11
倪謙	「漢江春泛」(칠율 1수)	권1	董越	「楊花渡」(칠율 1수)	권 11
倪謙	「游楊花渡」(칠율 1수)	권1	董越	「晚登望遠亭」 (칠율 1수)	권 11
倪謙	「江上泛舟」(칠율 1수)	권1	王敝	「漢江遊覽偶成五詩錄 似同行諸君子」(칠율 2수, 오율 3수)	권 11
倪謙	「登喜雨亭」(칠율 1수)	권1	王敝	「晚登望遠亭」(오율 2수)	권 11
倪謙	「漢江游記」(1편)	권1	唐阜	「登漢江樓奉柬同遊諸 君子」(칠율 2수)	권 15
倪謙	「狎鷗亭記」(1편)	권1	史道	「遊漢江樓」(오언고시)	권 15
高閏	「舟近楊花渡被洪禮曹 大觥逼酒立成一律并 絕句請教」 (칠절 1수, 칠율 1수)	권 3	龔用卿	「國王遣議政判書諸臣 侍予遊漢江累饋酒肴 口占二律以紀其勝」 (칠율 2수)	권 19
高閏	「登漢江樓」(칠율 2수)	권 3	龔用卿	「登龍頭峰」(칠율 1수)	권 19
陳鑑	「登漢江樓」(칠율 1수)	권 3	龔用卿	「泛楊花渡觀捕魚」 (오율 1수)	권 19
陳鑑	「遊漢江」(칠율 1수)	권 3	龔用卿	「再遊漢江得此俚句別 有二律容續奉求和束 裝已迫不及細書也國 相判書承旨列位暨諸 都監道契」(오율 1수)	권 19
陳鑑	「遊楊花渡」(칠율 1수)	권 3	龔用卿	「再遊漢江一律」 (오율 1수)	권 19
陳嘉猷	「登漢江樓次韻」 (칠율 1수)	권 4	吳希孟	「望遠亭」(오율 1수)	권 19

陳嘉猷	「遊漢江和陳緝熙詩韻 (칠율 1수)	권 4	華察	「遊漢江次雲岡韻 (칠율 2수)	권 25
陳嘉猷	「登楊花渡龍頭峰雨中 讌集偶成五十六字錄 似同遊諸公用紀一時 之實耳詩云乎哉」 (칠율 1수)	권 4	華察	「楊花渡阻風」 (칠절 1수, 오절 1수)	권 25
陳嘉猷	「題狎鷗亭」(칠율 1수)	권 4	華察	「遊漢江記」(1편)	권 27
張寧	「登漢江樓」 (오율 10수, 칠율 1수)	권 5	韓世能	「登漢江樓」(칠율 1수)	권 33
金湜	「登漢江樓醉餘有述」 (칠율 1수)	권 7	黃洪憲	「漢江夕泛觀童子舞薄 暮而歸」 (칠율 1수)	권 36
金湜	「遊漢江見舟人捕魚感 而賦此」 (칠절 1수)	권 7	王敬民	「漢江樓讌集」(칠율 1수)	권 36
張城	「五月廿又八日遊漢江 登樓縱飲乘酣而歌初 不暇組織也觀者幸勿 誚焉」(오언고시 1수)	권 7	崔廷健	「遊漢江」 (칠율 1수, 오율 1수)	권 37
張城	「遊漢江留題舟中」 (칠율 1수)	권 7	朱之蕃	「漢江紀遊」(칠율 2수)	권 40
祁順	「漢江之遊議政徐君賦 律詩二章同遊諸君子 皆和之矣余雖次其韻 而未足以盡江上之思 因再作小辭二章」	권 8	朱之蕃	「漢江泛舟觀漁」 (칠언고시)	권 40
祁順	「登漢江樓次議政徐君 佳作」(칠율 2수)	권 9	朱之蕃	「仙遊峰」(칠절 1수)	권 40
祁順	「滿江紅調二闕」 (詞曲 2절)	권 9	梁有年	「泛漢江」(칠율 1수)	권 40
祁順	「漢江舟中和張左司大 人」(칠율 1수)	권 9	梁有年	「蠶頭峰」(칠율 1수)	권 40
祁順	「江遊樂趣何限適有拙 作未盡所懷再賦七言 一律」(칠율 1수)	권 9	熊化	「漢江泛舟時陪遊者皆 東國名士」(칠율 1수)	권 43
祁順	「龍頭山晚酌」 (칠율 1수)	권 9	熊化	「西湖泛舟西湖卽漢江 下流以水渴不能通舟 續有此遊諸賢仍在坐」	권 43

				(칠율 1수)	
祁順	「題狎鷗亭」(칠율 1수)	권 9	姜曰廣	「登漢江亭」(오율 1수)	권 45
張瑾	「漢江之遊參贊徐君賦律詩二章旣和之矣然佳景非常豈宜少詠因再賦一律置於舟中」(칠율 1수)	권 9	姜曰廣	「遊漢江」(오율 2수)	권 45
張瑾	「登楊花渡龍頭峰」(칠절 1수)	권 9	姜曰廣	「遊楊花渡」(칠율 1수)	권 45
張瑾	「狎鷗亭」(칠절 1수)	권 9	姜曰廣	「登蠶頭峰有感賦一律併似同遊諸君子」(칠율 1수)	권 45
董越	「三月望日登漢江樓」(칠율 1수)	권 11	王夢尹	「遊漢江」(칠율 2수)	권 45
董越	「是日國王預遣二承旨於樓中設宴坐見風水成文用賦一律」(오율 1수)	권 11	王夢尹	「登漢江亭」(칠율 1수)	권 45
董越	「泛漢江」(오율 1수)	권 11	王夢尹	「遊楊花渡」(칠절 2수)	권 45

Abstract

Han River sightseeing and literary embodiment of Ming(明) dynasty's envoy
/ Lee Guk Jin*

When Ming(明) dynasty's envoy stays in Hanyang(漢陽), it was important reception event that offer Han River sightseeing to them. At this process, Ming dynasty's envoy exchanges poem with Chosun(朝鮮) Dynasty's writer, and expressed view of Han River and individual excitement. Also, some Ming dynasty's envoy has written a book of travels after Han River sightseeing ends.

When Ming dynasty's envoy has written a book of travels, they adhere to self-consciousness which did not lose duty of envoy, and expressed itinerary, beauty of scenery, and individual excitement of Han River sightseeing.

Among them, Ye, gyeom(倪謙)'s Hangangyugi(漢江遊記) and Gi, sun(祁順)'s Hanganggi(漢江記) showed resected contents · formulaic composition · formulaic expression techniques. While, Hwa, chal(華察)'s Yuhangangi(遊漢江記) and Wang, mong-yun(王夢尹)'s Hangangseonyudogi(漢江船遊圖記) showed free substance · irregular composition · active expression techniques. Specially, several works command antithesis(對偶法) and Jangbeop(章法) of Chinese verse elaborately, displayed high literary value as adding scenery delineation and emotion's expression.

Also, Han, myung-hui(韓明澮) went as envoy in Ming dynasty, had received a name and a Gimun(記文) about Apgu-gazebo(狎鷗亭) from Ye, gyeom(倪謙). And had received poems about Apgujeong(狎鷗亭) from Ming dynasty's writers in next time envoy mission. Through this, he wished to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RIKS), Korea Univ. / jinysmile@hanmail.net

improve authority about own and own Apgu-gazebo(狎鷗亭)'s name, Apgu-gazebo(狎鷗亭) situated to a famous place of Han River to Ming dynasty's envoy by these effort.

【Key words】Ming(明) dynasty's envoy, Han River sightseeing, Hangan-gazebo(漢江樓), Yanghwado(楊花渡), Jamdubong (蠶頭峰), Mangwon-gazebo(望遠亭), Apgu-gazebo(狎鷗亭)

투고일 : 10월 25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